(726)

주체 106 (2017) 1

차 례

동해전역에 타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 ······ 1

인민이 따르는 령도자 ······ 2

북변천리에 울려퍼진 로동당만세소리 ······ 8

중량레루생산에서 혁신 ······ 10

평양자라공장 ······ 12

작고도 큰 공장 ······ 14

수도시민들에게 장수샘물을 ······ 16

류경안과종합병원 ······ 18

조국의 영예를 떨친 녀자축구선수들 ······ 22

례성강의 이동식그물우리양어 ······ 24

간석지벌의 청년들 ······ 26

웃음소리 높은 곳 ······ 28

철판들파전의 앞장에서 ······ 30

의학자가정 ······ 32

과학자양성의 원종장-리과대학 ······ 34

2016년 가을철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경기 진행 ······ 37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 ······ 38

력사유적
관음사 ······ 40

표지: 백두산천지　　사진 홍훈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해가고있는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11월

동해전역에 타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인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이 지난해 10월말부터 11월 19일까지 20여일동안에 9만여t의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희한한 《이채어경》을 펼쳐놓았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지난해에 동해전역에 타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은 200일전투의 결승선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천만군민에게 무한한 힘과 열정을 안겨주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인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를 비롯하여 인민군대안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의 포구들마다에 가득 차넘치는 물고기더미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에서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배전이 넘치게 물고기를 가득 싣고 들어와 한창 하륙작업을 하고있는 고기배에도 오르시여 어로공들의 고기비늘묻은 손을 반갑게 잡아주시고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쩔바를 몰라하는 어로공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들의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맡으니 만시름이 풀린다고 하시면서 정말 희한한 풍경, 기막힌 풍경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기세로 분발하여 투쟁 또 투쟁함으로써 황금해의 력사를 애국충정의 피와 땀으로 줄기차게 써나가는 수산혁명의 선구자, 바다의 정복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부문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는 가까운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잡으며 나가면서도 잡고 들어오면서도 잡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간곡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인민군대안의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크나큰 긍지와 영광을 안고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계속 창조하여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더 짙게, 더 가득히 차고넘치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글 김대현

인민이 따르는 령도자

승리의 신심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주체106(2017)년의 첫 진군길에 떨쳐나선 조선의 천만군민의 마음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긍지와 행복감으로 더욱 세차게 설레이고있다.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는 사회주의대화원,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문명강국을 일떠세우실 숭고한 뜻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펼치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빛나게 이어가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는 선군조선의 주체 100년대와 더불어 이 땅에서 창조되는 모든 기적과 번영의 원동력이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 겪으시는 고생을 오히려 락으로 여기시며 그이께서는 라선시와 평안북도 창성군을 비롯한 북변땅으로부터 강원도 고산군에 이르는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오늘도 쉬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그 나날속에 고산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사과바다, 과일바다풍경이 펼쳐지고 온 나라에 과학농사열풍과 함께 버섯재배열풍, 온실남새농사열풍이 일어났다.

강원도의 세포지구가 대규모의 축산기지로 전변되는것과 함께 조선의 동서해들에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만족을 모르고 한계를 모르시며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릴수 있게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릉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안과종합병원,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등 지난 몇해동안 나라의 곳곳마다에 솟아난 수많은 창조물들과 라선시 선봉지구에 이어 지난해 함북도의 북부지구에 펼쳐진 전화위복의 새 모습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전하는 증견물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천만리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이 땅우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갈수록 더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온 넋으로 절감하고있으며 그이를 한마음한뜻으로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철석의 의지안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가고있다.

글 최광호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5월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원아들을 축복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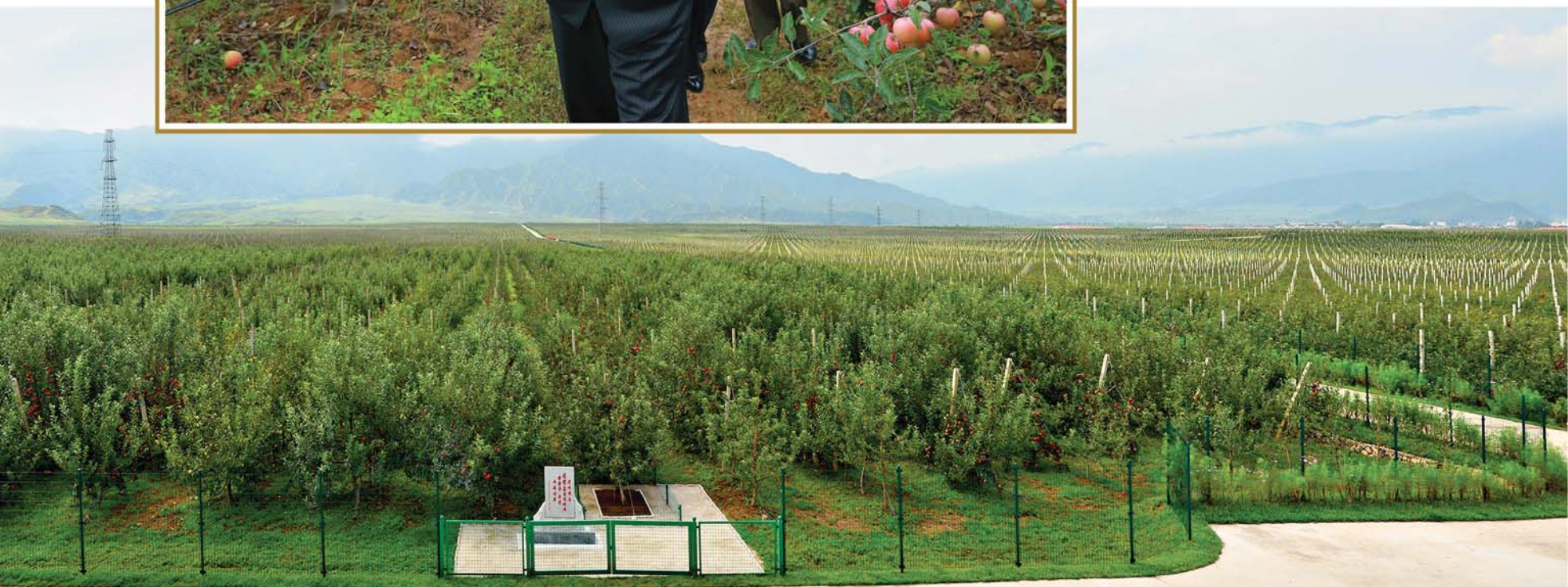
체육인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7월

류경치과병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3월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계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3월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9월

바다련어양어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5월

고산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9월

온 나라에 버섯향기, 바다향기가 차넘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전국 도처에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였으며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북변천리에 울려퍼진 로동당만세소리

-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1만 1 9000여세대 살림집건설 50여일만에 완공, 수십개의 새 거리, 새 마을 형성, 살림집입사 진행 -

혹심한 재난의 파도가 휩쓸었던 북변천리에 설한풍과 폭우에도 끄떡없는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불과 2개월만에 일떠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펴게 되였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축복속에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의 새 거리, 새 마을들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그들은 모든 생활조건이 구비된 방들, 각종 그릇들과 식량, 땔감들까지 쌓아놓은 새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받아 입사를 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리광성, 고승혁

중량레루생산에서 혁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 드높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의 줄기찬 노력에 의하여 지난해 새로 현대화된 중량레루생산공정들에서 만부하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고있다.

중량레루생산에 필요한 철강재를 제때에 보장할 책임감을 안고있는 용광로직장과 강철직장의 용해공들의 열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용광로직장의 용해공들과 기술자들은 산소열법용광로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것과 함께 자체로 여러가지 측정수단과 장치들을 도입하고 로운영을 정상화하여 매일 많은 선철을 생산하고있다.

과학적인 용해방법을 적극 탐구, 도입해가고있는 강철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용해시간을 훨씬 단축하면서도 차지당 쇠물생산량에서 초고전력전기로의 조업이래 최고수준을 돌파하고있으며 새롭게 제작한 련속조괴기중간납비의 가열장치효률도 부단히 높여 생산한 강재들을 중량레루생산공정에 보내주고있다.

중량레루생산을 맡은 조강직장의 가열공들은 가열로의 압력과 랭각수관리를 정상화하여 레루생산에 필요한 온도를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압연작업반에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압연주기를 줄이고 레루의 생산성을 훨씬 높이고있다.

레루수평교정기를 비롯한 새 설비들을 받아들인 중량레루완성직장의 기대공, 운전공들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도 생산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을 힘있게 떨칠 굳은 결의에 넘쳐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근로자들의 줄기찬 노력으로 하여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으로는 많은 중량레루들이 보내여지고있다.

사진 홍태웅 글 정기상

새로 현대화된 중량레루생산공정들에서 만부하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고있다.

평양자라공장

무인먹이운반차를 리용하고있다.

평양시 교외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자라공장이 지난해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새롭게 전변되였다.

연건축면적이 5만 3 010여㎡인 평양자라공장은 년간 생산능력이 수십만마리에 달한다.

공장에는 종합조종실, 실내자라양식장, 알깨우기실, 지열기계실, 미생물배양장 등 자라생산공정에 따르는 조건과 환경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공장에는 양식장의 물온도와 산소함량, 폐하, 먹이주기시간 등을 실시간조종하며 여러가지 생산 및 계획방법까지 모의할수 있는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여있다. 그리고 자라양식장들에 대한 보온과 지열에 의한 열보장대책이 철저히 세워져있을뿐만 아니라 양식에 리용되였던 물을 다시 사용할수 있도록 생물려과에 의한 물재순환공정도 확립되여 에네르기절약형공장, 물절약형공장으로 되였다.

공장에서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제작한 자라알깨우기기계와 무인먹이운반공급기를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알깨우기실수률을 비약적으로 높이였을뿐아니라 양식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된 지난해에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한 공장에서는 지금 자라마리수를 늘이며 우량품종의 자라종자들을 확보하고 육종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사료보장을 앞세우고 방역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생산되는 많은 자라들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되고있다.

사진, 글 안철룡

여러가지 생산 및 계획방법까지 모의할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고있다.

알깨우기실

자라병원체검사

작고도 큰 공장

조선에서 최근년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문수기능회복원 등 현대적인 보건시설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는 속에 지난해 9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용산소생산 및 공급기지인 보건산소공장이 새로 일떠섰다.

주변의 자연풍치와 어울리면서도 위생문화적으로 산뜻하게 건설된 공장은 특색있는 건물장식으로 하여 멀리에서 보아도 의료용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것을 대뜸 알아볼수 있다.

보건산소공장에는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콤퓨터화되였으며 병원들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이 산소를 받아갈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산소분리기장, 산소충진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마다에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져있는 공장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통합생산체계가 훌륭히 구축되여있으며 의료용산소를 운반하는 전용차까지 마련되여있다.

그리고 치료예방기관들에 위생학적기준에 부합되는 질좋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검사체계가 엄격히 세워져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료용산소는 순도가 99.8%이상으로서 세계보건기구의 위생학적요구에 부합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의료용산소는 미학성, 편리성, 실용성의 원칙에서 건설된 산소공급소를 통하여 해당 병원들에 공급되고있다.

비록 크지 않지만 보건산소공장은 더 많은 의료용산소생산으로 인민들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사진, 글 홍광남

생산된 산소를 제때에 보건부문에 공급하고있다.

산소발생장

액체산소충진장

스위스국제표준기술검사소에서 받은 품질인증서

샘물주입

수도시민들에게 장수샘물을

평양시 만경대구역 원로리에 룡악산샘물공장이 자리잡고있다.

오래 산 로인들이 많다고 하여 그 지명이 유래된 원로리에서 수질이 좋고 물량이 풍부한 샘물이 발견되고 그를 원천으로 하는 샘물공장이 일떠선 주체96(2007)년 5월 이후부터 여기에서 생산되여 나오는 샘물은 점차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주체100(2011)년 1월 20일 이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공정들을 오랜 시간 돌아보시면서 친히 물맛까지 보아주시고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샘물제품을 생산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이곳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샘물생산능력을 2배로 늘이였으며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공장의 위생문화적환경도 보다 훌륭하게 꾸려놓았다.

그와 함께 샘물생산에 필요한 용기생산공정도 그쯘하게 갖추어놓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기조화 및 정화설비들을 설치하여 생산현장의 무균화, 무진화를 완성하고 경영관리와 생산관리, 공정조종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장의 현대화를 훌륭히 실현하였다.

지난해 9월 룡악산샘물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전변시켰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여나감으로써 질좋은 샘물을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해주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수도의 상점들에 생산된 샘물을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은정깊은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룡악산샘물은 셀렌과 불소, 스트론티움, 메타규산과 같이 건강장수에 유익한 광물질과 주요 이온들을 가장 리상적으로 함유하고있어 이발과 뼈의 발육을 좋게 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며 암과 심장혈관질병, 동맥경화, 골송소증을 예방하고 만성위염, 대장염, 관절염과 부인병 등의 치료에 특효가 있다.

하여 사람들속에서 장수샘물로 나날이 인기가 높아가고있다.

사진, 글 리명국

용기세척공정

샘물생산

검사공정

봉사부문들에 제때에 실어나른다.

류경안과종합병원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에 의하여 현대적인 보건시설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는 속에 지난해 10월 평양의 문수지구에 류경안과종합병원이 새로 건설되여 개원하였다.

최상의 의료설비들이 갖추어진 4층으로 된 외래병동과 8층으로 된 입원실병동, 여러가지 안경을 교정, 제작하여 봉사해주는 안경상점까지 갖춘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인 류경안과종합병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인민의 병원으로 훌륭히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성을 지니고 환자치료에서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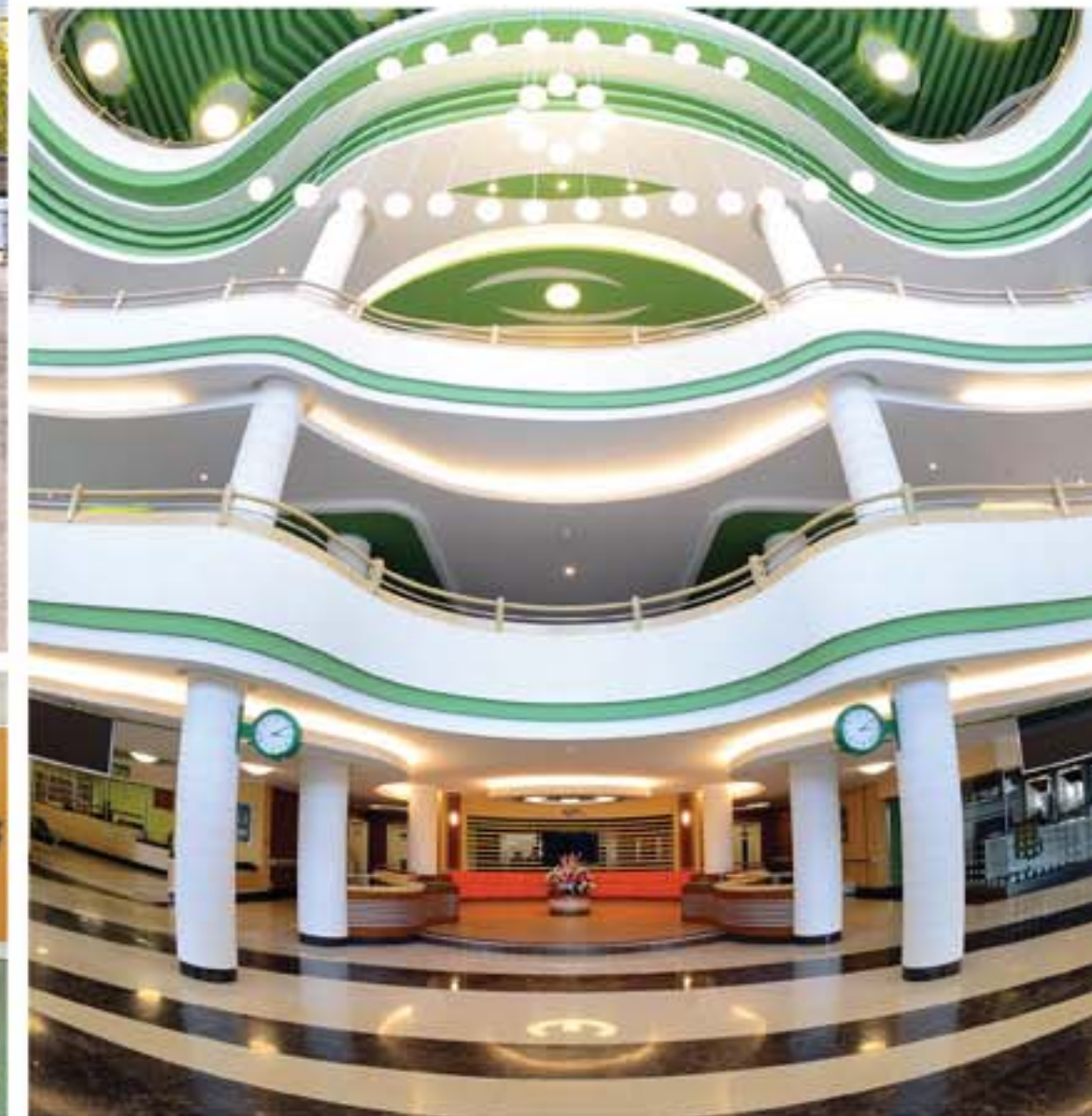
첨단의료설비들을 적극 애호관리하는 한편 선진의학과학기술을 탐구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방법을 개선해나가고있다.

병원에는 안경상점도 있어 눈치료만이 아니라 안경봉사까지 해주는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진렬대들마다에 갖가지 안경들과 부속품들, 광학기재들을 갖추어놓은 안경상점은 찾아오는 근로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상점에는 시력검사실, 교정실, 가공실도 훌륭히 꾸려져있어 안경봉사의 과학성, 친절성, 신속성을 보장하고있다.

류경안과종합병원과 같은 현대적인 보건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에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마음들을 굳게 가다듬고있다.

사진, 글 리광성

안저검사실

소아안과

록내장과에서

각막굴절검사실

수술장

병원내부시설들의 일부

시력검사실, 교정실, 가공실이 있다.

병원에는 안경상점도
꾸려져있다.

누구나 시력과 기호에 맞는
안경들을 봉사받고있다.

조국의 영예를 떨친 녀자축구선수들

- 2016년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

조선의 나어린 녀자축구선수들이 2016년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을 쟁취하였다.

주체97(2008)년부터 2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이 경기대회는 지난해 가을 요르단에서 다섯번째로 열리였다.

경기대회에 참가한 조선녀자축구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조별련맹전 3조에 속하여 잉글랜드팀과의 첫 경기에서 3:3을 기록하고 브라질, 나이제리아팀들과의 나머지 경기들에서 1:0, 3:0으로 이겨 조에서 1위의 성적으로 승자전단계에 진출하였다.

준준결승경기에서 아프리카의 강팀인 가나팀을 2:1로, 준결승경기에서는 베네수엘라팀을 3:0으로 물리치고 결승의 마당에 나섰다.

상대는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 결승경기에서 패배를 안겼던 일본팀이였다.

시종일관 치렬하게 벌어진 경기에서 높은 공격정신과 집단력으로 상대를 제압한 조선녀자축구선수들은 득점이 없이 끝난 전후반경기에 이어 진행된 11m차기에서 침착하고도 정확하게 차기를 모두 성공시켰다.

결국 조선녀자축구선수들은 5:4로 일본팀을 누르고 주체97(2008)년의 첫 경기대회이후 두번째로 우승컵을 높이 들어올렸다.

녀자축구의 밝은 장래를 그려볼수 있게 하는 이 성과는 조선인민을 커다란 환희와 격정으로 들끓게 하였다.

하여 10대중반의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경기에서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린 선수들이 귀국하는 날 평양의 거리들에는 열렬한 축하와 환영의 꽃바다가 펼쳐졌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최영

은축구화상을 수여받은 리해연선수

은뽈상을 수여받은 승향심선수

우승하고 귀국하는 선수들을 평양의 수십리연도에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례성강의 이동식그물우리양어

황해북도 금천군을 감돌아 흐르는 례성강에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있다.

푸른 물결 출렁이는 례성강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더해주듯 8각형모양의 색지붕을 얹은 봉사선이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과 나란히 물우에 두둥실 떠있다.

갖가지 물고기들이 욱실거리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도 희한하지만 펄펄 뛰는 잉어며 붕어, 가물치, 쏘가리와 같은 물고기들을 건져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료리들을 만들어 내고있는 봉사선에서 즐거움을 금치 못하는 손님들의 모습 또한 볼만하다.

례성강의 이 풍경은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풍성한 식생활을 마련해줄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받들고 떨쳐나선 금천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낳은 창조물이다.

그들은 례성강의 수질상태며 먹이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양어품종들을 선정하고 물고기들에 대한 먹이공급으로부터 수질감시, 생육상태관찰 그리고 동력보장에 이르기까지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종할수 있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만들어 띄워놓았다.

이와 함께 생산한 물고기들을 인민들이 보다 신선한것으로 맛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과 나란히 봉사선도 띄웠다.

한번에 100여명의 손님들을 봉사할수 있게 꾸려진 봉사선에는 승강장치가 설치된 그물우리도 있다.

여기에는 갖가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있어 손님들이 구미에 맞는 물고기를 건져내면 즉시에 료리봉사를 해주고있다.

례성강에 펼쳐진 이채로운 풍경은 군안의 인민들은 물론 오가는 길손들에게도 즐거움을 안겨주고있다.

사진 진주동 글 박충성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에서 잡은 물고기들은 봉사선에서 여러가지 료리들로 가공하여 손님들에게 봉사하고있다.

봉사선에서 손님들은 구미에 맞는 물고기를 직접 건져내기도 한다.

간석지벌의 청년들

두해전 5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백수십여명의 새 세대 청년들이 사회주의협동벌로 떠났다.

그들중에는 도안의 안주시, 숙천군, 증산군들에서 고급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자원진출하는 70명의 청년들도 있었다.

그들이 오늘 평안남도 평원군 대풍리 간석지벌에 뿌리를 내린 대풍협동농장 청년작업반원들이다.

간석지벌은 몇해전에 조선서해의 조류영향을 받아 쓸모없이 버림받던것을 새로 개간하여 얻은 땅이였다.

청년작업반원들은 나서 자란 고향은 달랐지만 쌀로서 조국을 받들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간석지벌에 청춘의 열정과 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생소한 농사일이였지만 그들은 농업과학기술선전실운영을 활발히 하여 선진영농기술과 방법들을 하나하나 익혀갔다.

그리고 새로 개간한 간석지벌에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게 토양겉층의 소금기농도를 최대로 낮추는 물빼기와 함께 소금기견딜성이 강한 벼모를 키워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시기별 농작물의 비배관리와 비료주기, 병해충막기 등으로 바쁜 속에서도 여러가지 영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기술도 배우고 종자처리장, 농기계창고, 태양열온실, 청년학교, 목욕탕 등을 건설하였으며 수백마리의 각종 집짐승들이 욱실거리는 축산기지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지난해에는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에 알곡증산으로 이바지해 갈 드높은 열의를 안고 봄철영농시기부터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훌륭한 성과를 가져왔다.

드넓은 간석지벌에 뿌리를 내린 청년작업반원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쌀로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열정으로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사진 안철원 글 박병훈

나서 자란 고향은 서로 달라도 쌀로써 조국을 받들어갈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간석지벌에 청춘의 열정 아낌없이 바쳐간다.

웃음소리 높은 곳

- 중앙동물원 동물재주장을 찾아서 -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자리잡은 중앙동물원에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고있다.

지난해 새롭게 개건된 중앙동물원의 그 어디를 가나 기쁨을 자아내지만 동물재주장에서는 관람자들이 재주동물들의 공연에 끌리여 웃음속에 시간가는줄 모른다.

재주동물들의 재치있는 동작들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안겨주고있다.

동화세계를 형상한 무대에 나온 꼬마원숭이가 조교사가 던진 뽈을 어렵지 않게 받아 롱구륜안에 재치있게 넣는가 하면 애완용개들은 축구경기를 펼쳐놓고 멋진 득점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문제풀이도 곧잘 한다.

처음 미숙한 동작밖에 수행하지 못하던 동물들이 인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안겨주는 《명배우》로 되기까지는 이곳 조교사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동물들에게 재주를 배워주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

앞발들기라든가, 앉기, 서기를 비롯한 기초동작들을 배워주는데만도 많은 품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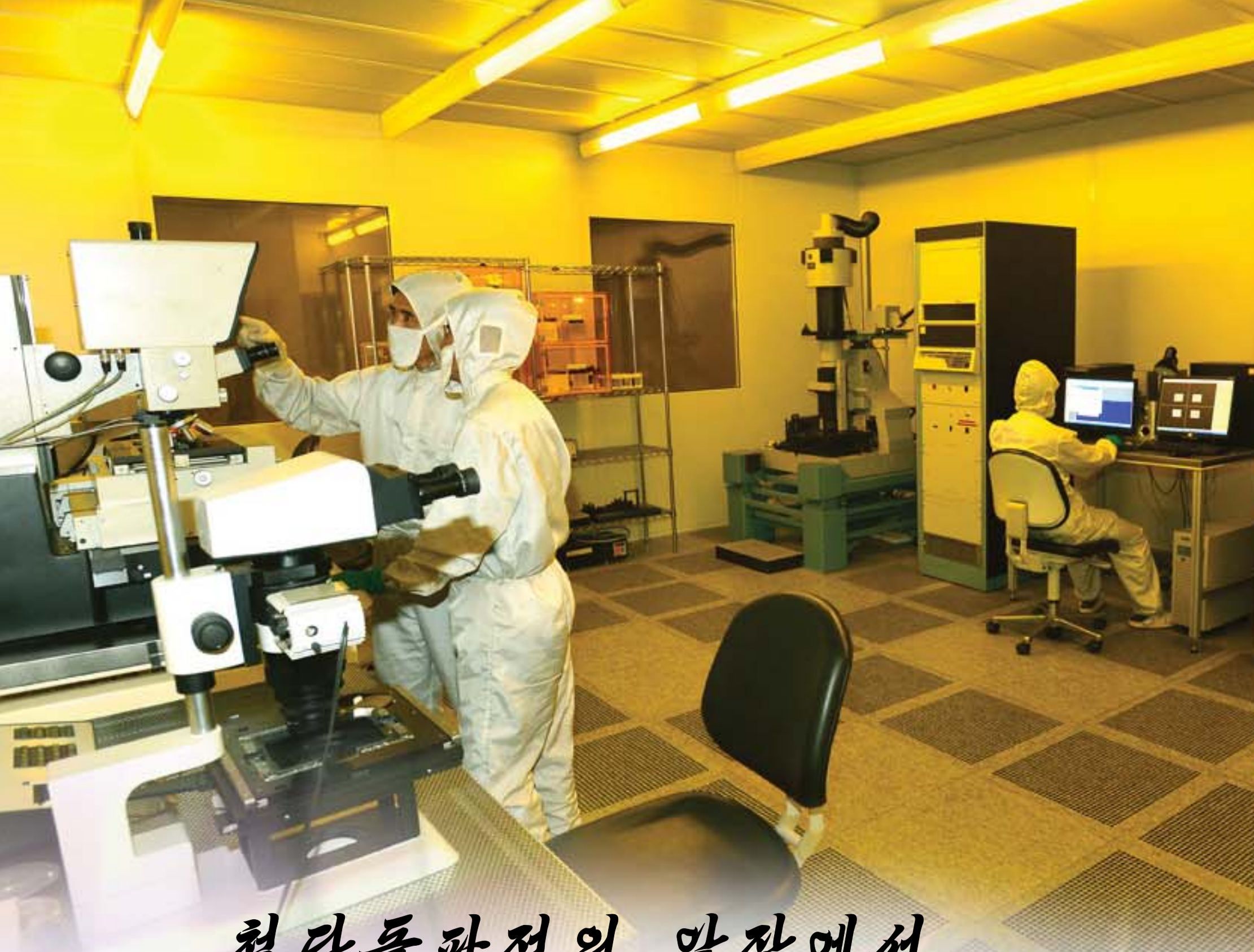
하지만 조교사들은 새로운 동작들을 창작하여 하나하나 숙련시켜나갔다

그들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재주동물들의 매 종류별, 매 개체별 성질과 특성에 맞게 훈련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무대에 오르던 《애완용개들의 장애물극복경기》, 《애완용개들의 산수공부》 등 동물들의 재주를 보다 세련시키였으며 새로 창작한 《애완용개들의 축구경기》, 《승용차우에서 원숭이재주》, 《비둘기재주》 등 많은 종목들을 공연무대에 올림으로써 관람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재주동물들의 기교를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조교사들

오늘 중앙동물원의 동물재주장은 련일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김선경

첨단돌파전의 앞장에서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은정과학지구의 수려한 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이 제작소에는 현대적설비들을 갖춘 연구실, 실험실들과 함께 생산기지도 갖추어져있다.

그리고 대다수가 20대, 30대의 청년들인 연구사들중의 80%이상이 학위학직소유자들이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주인이라는 긍지와 자각을 안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비약을 일으킬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이들이다.

마스크제작실과 집적회로설계실들의 연구사들은 마스크제작기술과 집적회로설계기술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그 응용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그들에 의해 마스크제작공정의 보다 높은 수준의 CNC화와 계량계측용집적회로를 비롯한 전용집적회로설계 그리고 극소형처리소자를 핵심으로 하는 체계대규모집적회로설계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전자장치들과 전용집적회로를 응용한 각종 전자장치들과 제품들을 연구개발하며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이곳의 환경연구집단과 지능장치제작연구집단은 공기정화소독기와 엽록소측정계기를 비롯한 새 제품들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연구성과확대도입실의 연구집단은 농업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보다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포전기상관측체계를 설계제작하였다.

최근에도 나라의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평양자라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무인먹이공급기를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실현에 적극 기여하였다.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지니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연구집단의 줄기찬 노력은 바야흐로 더 큰 성과를 약속하고있다.

사진 안평연 글 최진호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해결해주고있다.

의학자가정

흔히 사람들은 김만유병원 CT과 과장 교수 박사 리명권의 가정을 두고 의학을 위해 생겨난 가정이라고 한다.

단지 3대에 걸쳐 의학부문에 종사해오는 가정이여서만이 아니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를 이어가며 아름다운 정성의 꽃을 피워가기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리용겸은 조선에서 방사선의학의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선대백과사전에 올라있다.

그는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나라의 의학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1950년대부터 의학계에서 첨단과학의 하나였던 방사선의학을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온 그는 검사와 치료에서 정확성과 신속성, 믿음성, 효과성이 큰 종합화상의학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방사선치료학을 비롯한 방사선의학의 새로운 분과들을 내오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나라의 의학과학기술발전에 의의가 있는 15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론문과 많은 방사선의학도서들을 내놓았다.

그가 걸어온 한생은 자식들의 성장의 거울로 되였다.

자식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바쳐온 그의 뒤를 이어 의학자가 되였다.

그중에서도 둘째아들인 리명권은 아버지가 개척한 방사선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탐구의 먼길을 걸어왔다.

주체51(1962)년 평양의학대학(당시)에서 공부하던 학생시절에 《비특이적면역작용의 방사선방어효과에 대한 실험적연구》를 비롯한 여러 론문을 발표하여 사람들을 놀래운 그는 50여년간 뇌하수체종양의 최첨단수술을 화상적으로 담보하는 외과적화상기술을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환자들에 대한 진단을 렌트겐으로 정확히 확증할수 있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발명, 창의고안들을 내놓음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공로로 하여 그는 전국보건일군대회와 조선지식인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여러 대회들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주체98(2009)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생일상도 받아안았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과 높은 국가수훈을 받았다.

리명권의 세 아들도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인민의 생명을 책임진 의학자가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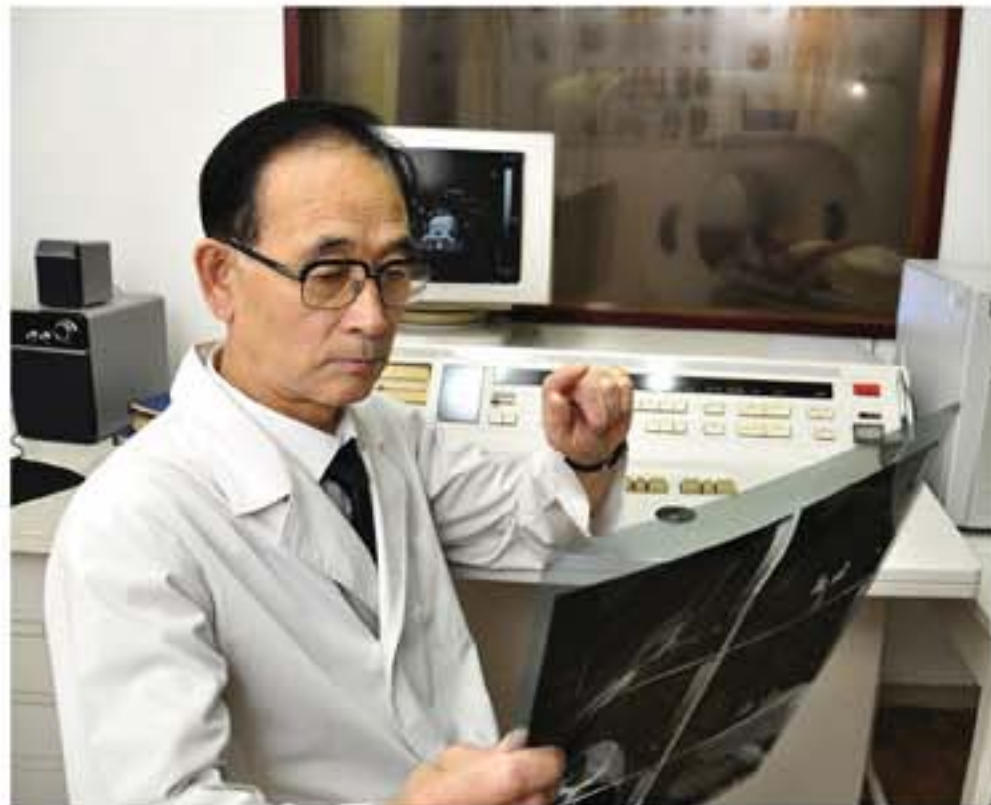
CT에 의한 인체내지방분포 및 수분량계측법과 급성대동맥해리의 수술방법을 연구하여 의학계의 파문을 일으킨것이라든가 뇌하수체종양수술의 첨단기술을 개척한것 등 최근에 나라의 의학부문에서 이룩한 많은 성과들속에는 그들의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오늘도 리명권과 그의 자식들은 나라의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한 길에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선경

조선에서 방사선의학의 개척자의 한 사람이였던 교수 박사 리용겸 (리명권의 아버지)

국내에서 진행된 제1차 렌트겐학 과학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리용겸

나라의 의학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리명권과 그의 아들들

김만유병원 CT과 과장 교수 박사 리명권

김만유병원 연구사 리영호 (리명권의 맏아들)

둘째아들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의사 리영진 (가운데)

셋째아들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의사 리영민 (왼쪽)

세계적인 프로그람경연들에서 대학이 이룩한 성과들의 일부 자료들

과학자양성의 원종장 – 리과대학

현대적인 교육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바쳐간다.

평양시 은정구역에 리과대학이 자리잡고있다.

한평생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인재의 역할을 중시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친히 이름까지 명명하여주신 이 대학은 주체56(1967)년 1월 17일 창립을 선포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유능한 과학인재들을 키워내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대학의 위치와 학생 및 교원력량의 선발, 학과, 학제의 선정과 강의안작성 등 대학의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령도는 대학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자기 발전의 새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하여올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국가과학원지구에 124 000여㎡의 부지를 차지하고 솟아있는 대학에는 기초 및 정보과학부문에 대한 교육사업과 과학연구활동을 위한 조건과 환경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전국적으로 확립된 인재선발원칙에 따라 입학한 학생들은 본과과정으로부터 박사원을 거쳐 박사후과정에 이르는 련속고등교육체계가 세워져있는 대학에서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전공학과를 선택하고 마음껏 과학의 세계를 탐구하고있다.

세계과학원 회원으로 등록된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망라되여있는 대학의 교수집단에는 박사들만도 100여명이나 된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학과목들을 부단히 개척하고 현대적인 교육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교육과 과학연구를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리과대학의 주요한 활동내용을 이루고있다.

대학의 인재양성사업은 학생들의 높은 학과성적과 졸업생들의 뛰여난 실력으로 뚜렷이 증명되고있다.

이곳 학생들은 최근년간에만도 국제대학생프로그람경연들과 인터네트프로그람작성경연 등에서 여러차례 우승하였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대학에서 배출된 20대박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졸업생들이 여러 과학연구기관들에서 나라의 과학발전을 추동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특히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지인 국가과학원의 오늘은 이 대학의 발전로정과 떼여놓고 결코 생각할수 없다.

과학의 힘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구상을 세계적인 교육과학성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리과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최진호

여러 실험실들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하고있다.

화학생물연구소에서

예술적자질을 높이는 사업과 체육활동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2016년 가을철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경기 진행

지난해 10월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에서는 2016년 가을철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경기가 사회적관심속에 진행되였다.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경기는 장애자들이 보통사람들과 꼭같은 사회적권리를 향유하도록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시책에 의하여 주체99(2010)년부터 진행되여오는 체육경기이다.

해마다 한번씩 진행하여온 이 체육경기는 날을 따라 높아가는 사회적관심으로 하여 주체104(2015)년부터는 봄철과 가을철로 나뉘여 한해에 두번씩 열리고있다.

장애자부류와 나이별에 따르는 애호가부류로 나뉘여 단식과 복식으로 진행되는 경기에는 해마다 여러 지역들에서 경기를 진행하여 우수한 성적을 지닌 12살이상의 장애자들과 평양시안의 40살이상의 남성애호가들, 35살이상의 녀성애호가들이 참가하고있다.

2016년 가을철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경기에는 두손이 없는 장애자인 남포시의 10대나이의 선수인 김영록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선발된 지체장애자선수들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었다.

우승의 꿈을 안고 활기에 넘쳐 출전하여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는 장애자선수들의 모습과 관람석에서 울려나오는 열띤 응원소리로 하여 경기장은 시종 흥성이였다.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한 애호가 탁구경기도 볼만하였지만 장애자와 애호가들이 한조가 되여 진행한 복식경기와 장애자와 애호가들사이의 대항경기는 더욱 이채를 띠였다.

조선에 주재하고있는 외국인들도 장애자들과 혼성조가 되여 복식경기를 진행하여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경기에서는 우승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2016년 가을철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경기는 나날이 높아가는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에 대한 사회적관심의 일단을 잘 보여주었다.

사진 리명일 글 김현

시상식이 있었다.

강냉이제품전시장

지난해 7월에 개업한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이 특색있는 봉사로 흥성이고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지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이 전시장에서는 30여가지나 되는 강냉이가공품과 음식들을 전문적으로 봉사하고있는데 그 맛이 독특하면서도 영양가가 매우 높은것으로 하여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친절한 봉사와 독특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가공품들과 음식들은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강냉이만으로 즉석국수와 같은 가공제품들을 생산할뿐 아니라 물국수를 눌러 오이랭국에 양배추김치와 고구마잎줄기, 버섯, 풋고추, 미역줄기같은것을 볶아놓고 삶은 닭알을 반알정도 놓아내는 랭면은 구수하면서도 생큼한 김치맛, 여기에 시원한 감까지 있어 누구나 찾는 음식이다.

강냉이딸기향겹단설기, 강냉이소젖크림겹단설기, 강냉이쵸코말이단설기, 강냉이과자, 강냉이검은찹쌀깨과자, 강냉이튀기 등 빵과 과자들은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빵, 과자보다 맛과 영양가가 더 우월하다.

강냉이쌀을 흰쌀에 조금 섞어 지은 밥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별식으로 되고있다.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에서 여러가지 강냉이가공품생산과 음식봉사로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 여기에는 강철수지배인을 비롯한 기술자들과 봉사자들의 높은 애국심과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어려있다.

그들은 10여년전부터 조선에서 많이 재배하고있는 강냉이를 주식으로뿐만 아니라 간식으로 먹고 차와 같은 음료로도 널리 마실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을 안고 제품개발을 하여왔다.

국수가공을 해본 경험밖에 없는 빈터에서 그들은 새 제품들을 개발하고 생산공정을 꾸려나감으로써 강냉이가공에서 껍질과 눈, 회분제거와 같은 난문제를 해결하고 초미분가공을 성공시켰을뿐아니라 여러가지 가공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전망도 열어놓았다.

오늘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은 현대적인 가공시설들과 제품개발력량을 가진 강냉이제품개발생산기지로, 다양한 강냉이음식봉사단위로 관심을 모으고있다.

전시장에는 체육문화후생시설들도 꾸려져있어 찾아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즐거움을 더해주고있다.

하기에 평양시민들은 물론 조선에 주재하고있는 외국손님들까지도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에서 생산하고 봉사하는 강냉이가공품들과 음식들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그와 함께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고 누리도록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받들어나가려는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의 열의도 더욱 높아가고있다.

사진 리학명 글 김태현

전시장에서는 강냉이가공품들과 음식들을 자체로 보장하고있다.

력사유적

관음사

대웅전과 그 내부의 일부

승방

개성시는 조선의 통일국가였던 고려(918년-1392년)의 수도로서 왕건왕릉, 경효왕릉(공민왕릉), 개성성, 대흥산성, 개성남대문, 연복사종, 만월대, 개성첨성대, 고려성균관, 선죽교, 표충비를 비롯한 수많은 유적유물이 있는 곳이다.

그중에는 천마산기슭 박연폭포부근의 관음사도 있다.

970년에 지은 관음사는 1393년에 크게 확장되였으며 그후 여러차례 보수를 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646년에 고쳐지은것이다.

원래 다섯채의 건물로 이루어져있던 관음사에는 지금 대웅전과 승방, 7층돌탑과 관음굴이 있다.

절간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정면 3간(8. 4m), 측면 3간(6. 61m)의 크지 않은 건물이다.

평판방우에는 바깥 7포, 안 9포로 된 포식두공을 놓았는데 두공은 모두 32개이다.

네 모서리와 앞면 가운데 기둥들의 두공우에는 룡대가리조각을 하였다.

건물안에는 소란반자를 높이 대고 거기에 잇대여 좁은 빗반자를 올려놓았다.

집안 깊숙이 불단을 놓고 그 우에는 두층짜리 닫집을 달아놓았다.

17포나 되게 섬세하게 짜올리고 붉은 빛이 돌게 한 닫집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예품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다.

건물전체에 입힌 금단청은 퍽 은근한 감을 준다.

대웅전앞 서쪽에 있는 높이 4. 77m의 7층돌탑은 고려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수한 탑이다.

승방은 정면 4간(10. 7m), 서쪽측면 4간, 동쪽측면 2간 되는 ㄴ모양의 평면을 가진 배집이다.

관음사뒤의 관음굴은 관음사가 서기전부터 있던것이다.

그안에 있던 2개의 관음보살상은 옛날의 조각상으로서는 매우 보기 드문 대리석상이다.

유백색대리석으로 조각한 높이 1. 2m정도의 앉은 모양의 관음상은 머리에 화려한 관을 쓰고 여러가지 몸치레를 하였으며 부드럽게 드리운 옷주름은 섬세하고 아름답다.

조선의 옛 건물의 특징을 잘 갖추고있는 관음사는 구조상 균형이 잘째인 우수한 건축유산의 하나로서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보로 보존관리되고있다.

사진 박창복 글 박영조

관음사준건비

제상

욕조

향불대

대리석으로 된 관음보살상

관음굴

낸곳 : © 조선화보사 2017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김일남 13606—681151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내 나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naenara. com. 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